K-산업, 세계무대 종횡무진

폭발물제거 로봇·정밀타격 드론 등 첨단 방산솔루션 공개

폴란드 MSPO 2023
유럽 방산시장 공략 본격화
한화, 계열사 통합 전시관 운영
LIG넥스원, 신궁 등 제품 소개

한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MSPO 참가 부스전경.

LIG넥스원 부스 조감도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를 통해 K-방산의 기술력 알리기에 집중한다.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이끌어낸 폴란드를 중심으로 향휴 유럽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5~8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 참가한다. MSPO는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폴란드 최대 국제방위산업전시회로, 파리·런던의 전시회에 이은 유럽 내 세 번째 규모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방산 계열사들은 무인 및 육·해·공·우주 분야의 첨단 무기체계를 선보이기 위해 대규모 통합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통합사 출범과 5월 한화오션의 그룹 편입 이후 공동 참가하는 첫 글로벌 행사다.

전시관 중앙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체계개발이 진행중인 미래형 국방로봇 무인수색차량에 지대지 유도탄인 천검을 탑재한 무기체계가 처음 공개된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쟁 이후 재건 분야와 향후 유럽의 무기 교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첨단 방산솔루션도 제시한다. 국내 양산을 앞두고 외부에 처음 공개되는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종전 이후 민간인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럽의 미래를 재건하기 위한 기술이다.

LIG넥스원은 폴란드는 물론 주변국에 첨단기술을 알리기 위해 항공탑재 유도무기 KGGB,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현궁·신궁 등 지상 유도무기와 드론 제품을 전시한다.

KGGB(한국형 GPS 유도폭탄)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LIG넥스원이 개발했으며 FA-50 외 다양한 항공기에 장착 및 운용이 가능한 무기체계다.

신궁은 국내에 배치된 단거리 대공미사일체계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 및 소형헬기 등에 대한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휴대용 지대공유도무기다.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은 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선정되어 대한민국 육군에 납품해 성능을 검증받았다. 국산화한 고성능 전자광학(EO) 카메라와 적외선(IR) 카메라를 비롯해 레이저 거리 지시기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이사는 "이번 폴란드전시회를 통해 LIG넥스원이 확보한 기술 경쟁력을 알리고 K-방산 선도업체로서 LIG넥스원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조선 '빅3' 친환경 선박기술 알린다… 정기선·정진택 앞장

〈HD현대 사장〉 〈삼성중공업 사장〉

싱가포르 가스텍 2023
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참가
다수 기술인증 예정… MOU 체결도

싱가포르서 열린 '가스텍2023'에 마련된 HD현대 부스 조감도

삼성중공업 홍보 전시관.

국내 조선 '빅3'(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가 세계 최대 가스에너지 산업 전시회인 가스텍에서 친환경 선박 기술 알리기에 나선다.

HD현대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은 오는 5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막하는 '가스텍 2023'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51회째를 맞이하는 가스텍 행사에는 전 세계 100여개국, 750개 기업, 4만여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는 정기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해 선사와 선급 등 글로벌 기업을 만나 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조선·해운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약 330㎡ 규모의 전시관에 LNG(액화천연가스)선과 LPG(액화석유가스)선, 재액화장치, 이중연료추진 엔진 등의 모형을 전시한다. 행사 기간 HD현대는 글로벌 선급·기업과 총 16건의 기술인증 획득 및 기술협력 MOU(업무협약)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탄소 배출이 없어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꼽히는 암모니아 및 수소 선박의 진일보된 기술력도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정진택 사장을 비롯한 영업·기술 임원 20여명이 총출동해 글로벌 메이저 에너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약 216㎡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운영하며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모델을 중심으로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소개한다.

한화오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줄인 그린십 사양이 적용된 LNG운반선과 암모니아 추진 암모니아 운반선,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 등 총 4종의 친환경 선박을 전시한다. /양성운 기자

최태원, 'SV 리더스 서밋' 주도… 사회문제 해결 어벤저스 모인다

〈SK그룹 회장〉

SOVAC 2023

15일 개최… 민간·공공 참여 확대
'연결과 협력, 지속가능 성장' 주제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회적가치(SV) 플랫폼인 '소셜밸류커넥트(SOVAC)'가 올해 5주년을 맞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공공 부문 참여를 크게 늘린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연다.

4일 SOVAC 사무국에 따르면 사회적가치 축제 'SOVAC 2023'이 오는 15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새로운 연결과 협력, 지속가능한 성장(A New Dimension of Connecting)'을 주제로 개최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안해 지난 2019년 출범한 SOVAC은 그동안 사회적기업·소셜벤처 생태계의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해 교류·소통하는 장(場)으로 기능해왔다.

특히 이번 SOVAC은 최태원 회장 주도로 'SV 리더스 서밋(Leaders Summit)'이 처음으로 열리고, 서울 성동구청과 공동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마켓을 운영하는 등 SOVAC의 진화발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SOVAC 행사에서는 ▲기후위기 속 산업 활성화 기회 ▲사회적기업·소셜벤처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사회적기업·소셜벤처 상품 유통전략 ▲로컬 활성화 방안 등 최근 사회적기업·소셜벤처 생태계의 화두를 주제로 강연 및 토의 세션이 진행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포스코인터, 年 9만t 규모 흑연 공급망 확보

아프리카 2개國 공급망 구축 MOU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차전지 원료 조달의 플랫폼 역할에 본격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를 방문해 2건의 '흑연 공급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광물자원 확보에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흑연 확보를 위한 첫 MOU 체결은 지난달 28일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캐나다계 광업회사 넥스트소스와 '몰로(Molo) 흑연광산의 공동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몰로 광산에서 생산되는 인상흑연(연간 3만톤) 또는 구형흑연(연간 1만 5000톤)을 10년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보한 흑연은 그룹내 이차전지 사업회사인 포스코퓨처엠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이 설명했다. 인상흑연은 천연흑연으로 절연성이 풍부해 전극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흑연을 말하고, 구형흑연은 음극재 제조에 적합한 형태인 구형으로 재가공한 흑연을 의미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에 체결한 2건의 MOU로 연간 약 9만톤의 인상흑연 확보가 가능해져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